

이범호 코치 “타선 걱정 없다...장점 이끌어내 화력 강화”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걱정 없다”는 이범호 타격 코치가 ‘마음’으로 KIA 타이거즈의 화력 강화를 이끈다.

KIA는 지난해 답답한 타격과 함께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리그에서도 손꼽는 강타선을 구축했던 터커, 나지완, 최형우의 동반 부진과 부상 속 팀 홈런도 66개로 최하위였다.

올 시즌에도 허약한 타력으로 평가받는 팀이지만 새로 1군 타격을 맡게 된 이범호 코치는 자신감을 보인다. 일단 나성범의 가세로 중심 타순에 힘이 실렸다.

이 코치는 “성범이가 들어오면서 감독님이 타순 짜는 게 좋아졌을 것이다.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이 배치돼 중심타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성범과 최형우 등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이 포진하면서 타선은 물론 야수진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 코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들이다. 지금 선수들 힘들다는 말이 별로 없다. 두 고참 선수와 또 (김)선빈이 주장이 되면서 팀을 이끌어 가려는 모습 보이니까 열심히 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후배들이 그런 선수들과 운동하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선수들과 함께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다”고 말했다.

나성범 가세로 중심 타순 힘 붙여 하위 타순에도 긍정적인 영향 마음 담아 개개인 능력 올리기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시즌 될 것

중심이 잡히면서 하위 타순에 대한 고민도 줄었다.

이 코치는 “팀이 안 좋으면 자주 밀어서 내려가는 기분이 되고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 팀이 아니라 개인이 되는 순간 타율이 올라갈 수 없다. 팀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3, 4, 5번이 잘 쳐주면 하위타순에 걸리니까 안타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팀도 강해진다. 잘 치는 선수가 많을수록 하위 타순도 잘 치게 된다”며 “2017년에 나와 (김)민식이란 3할을 못 쳤다. 팀에서 타율 8등이었는데 계속 찬스가 오고 타점, 홈런이 많아졌다. 옆에서 잘 쳐주는 선수들이 생기면 밑에 있는 선수들도 잘 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성장을 위해 이를 악문 선수들이 이 코치를 웃게 한다.

그는 “선수들의 의욕이 상당해서 자제시키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장단점을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장점만 부각시켜서 좋은 기분에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점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충분히 단점을 알고 있고,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단점에 얽매이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자주 장점을 이야기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A가 나성범으로 새 중심타선을 갖추고 반전의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나성범(왼쪽)이 함평캠리너스필드에서 신인 윤도현의 타격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록 선수들에게 자주 장점을 이야기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위타순 걱정 안 한다. ‘지나해 왜 못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하고 있고, 가진 능력이 충분하다. 성격인 것 같다. 지금도 선빈이와 찬호를 자주 붙여놓고 대화를 자주 시킨다. 선빈이는 하루에 하나씩 144안타를 친다는 생각이라면, 찬호는 반대로 오늘 2개 쳐야지 하는 생각이다”며 “하위타순 선수들은 안되면 자주 구멍타로 빠지

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기분을 바꾸고 있다. 작년보다는 좋은 시즌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코치는 현역 시절 경험을 살려 ‘틀’을 만들어 줄 생각이다.

이 코치는 “현역 때 한 달에 홈런 4개 친다는 생각으로 했다. 6개월이면 24개다. 그 틀 안에서 움직였다. 이번 달에 3개 쳤으면 다음 달에 5개 쳐야 하

고, 이번 달에 6개를 쳤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2개만 치면 되니까 더 편하게 하게 됐다. 매일 홈런치고 싶다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서 이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기술적으로 아무리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된다. 편안한 느낌으로 타석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진다. 능력 있는 선수들 장점을 끌어내면서 즐겁게 야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기영

임기영 옆구리 근육 KIA ‘부상 주의보’ 이의리 손가락 물집

캠프 이탈로 이민우·김현준 콜업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에 ‘부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KIA 캠프에 첫 부상자가 발생했다. 선발진의 두 축인 사이드암 임기영과 좌완 이의리가 부상으로 15일 1군 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임기영은 왼쪽 옆구리 내복사근, 이의리는 왼쪽 중지 물집으로 인한 이탈이다.

다행히 이의리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잔류군에서 캠프 재합류를 준비한다.

하지만 임기영의 경우 내복사근 미세손상으로 재활군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3주 이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만큼 임기영의 합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IA는 두 사람을 대신해 퓨처스 캠프에서 훈련을 해왔던 우완 이민우와 김현준을 콜업했다.

지난 1일 캠프를 시작한 KIA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라이브 훈련이 시작되면서 투수들은 볼펜이 아닌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타자들도 직접 투수들의 공을 때리면서 타격감을 살피고 있다.

실전을 위한 준비 단계이자 본격적인 엔트리 경쟁을 위한 무대가 시작되면서 선수단의 긴장감과 부담감이 커졌다. 또 캠프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더해진 상황.

그만큼 선수들의 오버 페이스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부상 우려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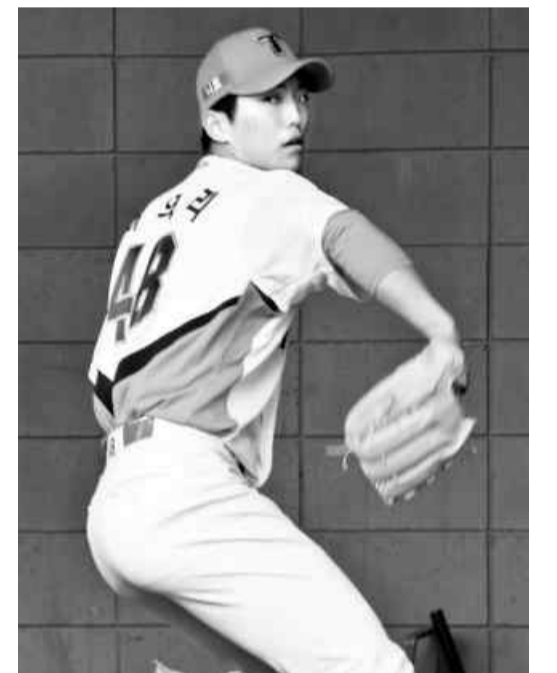
여기에 라이브 훈련이 시작되면서 아찔한 장면들

도 나오고 있다. 13일 라이브 훈련의 첫 주자로 나선 투수 한승혁이 공 몇 개도 던져보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 타자였던 김민식의 빠른 타구가 마운드에 바운드 된 뒤 한승혁의 종아리에 맞은 것이다. 결국 코칭스태프의 결정으로 한승혁은 라이브 훈련을 중단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14일에는 윤중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에도 마운드를 때린 강한 타구가 윤중현을 맞고 유격수 앞으로 향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공이 스치면서 윤중현은 예정된 라이브 피칭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실전 준비 단계에서 추위까지 다시 찾아오면서 KIA 캠프에 ‘부상’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이의리

이정호 감독 “광주만의 압박 플레이로 승격 관문 넘겠다”

K리그2 11개 구단 미디어데이

광주FC가 특유의 압박 플레이로 승격 관문을 넘는다.

오는 19일 개막을 앞둔 K리그2의 11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15일 2022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야심 찬 출사표를 던졌다.

올 시즌 광주 지휘봉을 잡고 감독 데뷔 시즌을 맞게 된 이정호 감독은 “어떻게 하면 실점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저분한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할 것이다”며 “광주를 신성한 사각과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다. 광주를 기대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감독은 광주의 신선한 에너지를 19일 안방에서 쏟아내게 된다. 새로 K리그2에 가세한 김포 FC가 광주의 첫 상대다.

이 감독은 “감독으로 데뷔전이다. 안정적으로

갈 생각이다”며 신중하게 새 시즌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 경기 컨셉을 잡고 가려고 한다. 오늘 경기 컨셉은 ‘공격이다’, ‘수비다’가 아닌 어떤 컨셉으로 매 경기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지 준비할 것이다”며 다양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광주의 색으로 승점을 쌓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플레이오프를 우선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승격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이 감독의 목표. 그가 우승 후보로 지목한 팀은 대전하나시티즌이다.

이 감독은 “투자하는 팀이 우승을 해야 한다. 대전이 우승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팀은 대전 옆에 붙어서 바짝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승격 공약도 내놔다.

이 감독은 “광주 시민들, 경기장에 오신 팬을 위해 사비로 경품을 구입해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승격 순간을 꿈꿨다.

주장으로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가한 안영규는

‘최소실점’을 이야기하면서 우승 목표를 언급했다.

그는 “선수단 모두 최소 실점으로 리그를 마치고 싶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분하게, 상대 팀들이 꺼리는 끈끈한 팀을 만들어내고 싶다”며 “지나해 (강등)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 마지막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젊은 피”가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주장의 생각이다.

안영규는 “모든 선수가 다 잘해줬으면 한다. (엄)지성 등은 원래 잘하는 선수니 충분히 잘해줄 것 같다”며 “올해 신인으로 입단한 정호연 선수가 기대된다. 실력이 출중한 선수고 K리그 무대에 잘 적응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승격을 하게 되면 경기장에 오신 팬들께 커피를 준비하겠다. 시즌을 보낸 유니폼과 축구화도 선물하고 싶다”고 승격 공약을 내걸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5일 열린 2022 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야심찬 출사표를 던진 이정호(오른쪽) 감독과 주장 안영규.

신영용 광주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부단장 위촉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에 신영용(사진) 광주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겸한 위촉식에서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선수단장에 위촉된 윤경선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신영용 부단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은 3월 4~13일, 중국 베이징 일원에서 개최되며, 한국은 선수 30여 명을 포함해 총 7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오는 23일 이천선수촌에서 베이징패럴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진행하고, 25일 결전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 3관 킹메이커
- 4관 언차티드,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넷: 해저동굴 대탈출
- 5관 언차티드
- 6관 언차티드
- 9관 나일 강의 죽음
- 7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 8관 씨네케틀 나일 강의 죽음, 리코리쉬 피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2022.03.03.(목)-04.(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